

# 상습 정체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 내년 착공

### 호남고속도로 예타 재조사 통과...7000억원 투입 2028년 완공 조오섭 의원 "동광주·용봉·서광주·동림IC 교통 혼잡 개선 기대"

밤낮없이 극심한 차량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나들목' 구간 확장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를 뚫고 7000억원 규모의 확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 사업 등 전국 6개 사업이 9~10월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광주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11.2km 구간이 4차선에서 6차, 8차선으로 확장되며, 사업비도 당초 4031억원에서 3041억원이 증액된 7072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 착공 후 5년 뒤인 2028년 하반기에 준공될 전망이다.

해당 구간은 1973년 2차로로 개통한 뒤 1986년 4차로로 확장됐지만, 현재는 최대 평균 통행량이 13만대에 육박해 6차로 확장 기준인 5만2000대를

초과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이고, 밥값을 가리지 않고 지체와 정체 현상이 심각해 고속도로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광주 도심 교통 정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013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2763억원 규모의 도로확장 사업이 추진됐으나, 전략환경영향 평가에서 방음시설 등 1467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2018년 2차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됐다.

이어 2019년 실시설계단계에서도 노선 주변 신규 아파트 5개 단지(3600세대)로 인한 추가 소음 대책이 필요하게 되면서 총사업비는 3000억원 이상 추가됐고, 결국 또 다시 타당성 조사 대상(3차)이 됐다.

앞전에 덮친격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토목·건축 사업 등을 최소화하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확장공사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위기를 느낀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재부 등을 상대로 해당 구간의 확장 필요성 등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다행히 해당 사업은 경제성 B/C 0.79, 종합평가 AHP 0.527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광주시는 해당 구간의 차로수가 6~8차로로 확장되면 그 동안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었던 북구 동광주나들목·용봉나들목, 서구 서광주나들목·동림나들목·빛고을대로, 광산구 산월나들목 등의 교통 혼잡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음시

설도 추가로 설치돼 고속도로 인접 주민의 자동차 소음 교통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북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용봉나들목 진입로 설치도 포함돼 광주전역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국토위)은 "광주시민께 약속했던 북구지역 최대현안이자 오래된 숙제가 해결됐다"면서 "북구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확장으로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의 소통과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6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고성능 컴퓨팅 기반 공용인프라 데이터센터 개소식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국내 최대 교육·연구용 AI 데이터센터 본격 가동

### 광주과학기술원에 개소...AI 생태계 활성화·비즈니스 기반 마련 기대

국내 최대 규모 교육·연구용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HPC-AI) 데이터센터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에서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HPC) 인프라 구축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공용인프라 구축으로 인공지능 연구·활용을 통한 광주 인공지능 산업융합 생태계 활성화와 다양한 비즈니스 기반 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이날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HPC

-AI) 기반 공용인프라 데이터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중 하나인 이번 사업을 이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인공지능 융합연구·교육·기업지원에 위해 HPC-AI 공용인프라 구축사업 주관기관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을 선정하고, 고성능 컴퓨팅 기반 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고성능 컴퓨팅(HPC)은 고급연산 문제를 풀기 위해 슈퍼 컴퓨터 또는 컴퓨터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HPC-AI 공용인프라 구축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4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융

합대학 및 산·학·연에서 교육·연구개발에 활용 가능한 HPC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전국 최대 규모로 지스트에 구축된 HPC-AI 공용인프라 데이터센터는 연산량 6페타플롭스(PF), 저장공간 10페타바이트(PB) 규모이며 통합관제실과 데이터터미널, 전력 및 냉각 기반실, 인공지능 스튜디오, 모빌리티 스튜디오, 미디어 스튜디오, 회의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AI 중심 도시 광주에 AI 융합연구·교육·기업 지원을 위한 HPC 공용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산·학·연·관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연구·활용 등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광주 AI 산업융합 생태계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총력 지원

### 전남도, 내년 예산 140억 편성...연관행사 유치, 주차·숙박 개선

2023년에 열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전남도가 예산, 인력, 인프라 조성 등은 물론 분위기 조성까지 총력 지원에 나섰다.

우선 전남도는 정원박람회 예산 140억원을 2023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지금까지 박람회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한 143억원을 포함하면 283억원으로, 이는 2013년 박람회 지원액(90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또 올 7월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전남도 직원을 25명으로 확대 배치하는 등 대대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했다.

특히 도비 283억원 지원으로 박람회 길러온 전남인 국가정원벚길 정원체험선, 순천저류지 정원, 미래정원국 국가정원식물원, 373ha의 경관정원, 동천미디어아트 공연장, 도심권 문화·정원 전시 연출 등이 한층 완성도 높게 조성될 전망이다.

이 밖에 약 8000명의 국내외 관람객 맞이하기 위해 8000여대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1만7000여

명이 이용 가능한 6778개 객실을 마련하는 등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람회 붐업을 위해 연관행사 유치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제21회 산의 날 기념행사와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잇따라 개최해 박람회 붐 조성에 활기를 더했다. 이에 더해 오는 5월 22개 시장·군수 등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해 박람회 범접 전국 확산에 발 벗고 나설 방침이다.

2023년 박람회 기간에도 도에서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국제전시경연대회, 정원월드투어페스타 등 국내외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를 유치해 관광객에게 불거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업국장은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도가 세계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내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결의

### 전남도, 1차 준비상황보고회

전남도가 2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제1차 준비상황보고회를 열어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성공 개최 결의를 다졌다.

전남도는 지난 2008년 여수 개최 이후 15년 만에 전국체전을 다시 개최한다.

이에 따라 각 실국·사업본부와 도교육청, 전남경찰청,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22개 시군 등으로 구성된 17개 집행부와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체전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전국체전기획단장의 양대 체전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각 집행부별 주요업무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개·폐회식 및 성화 봉송 지원, 숙박, 응급의료, 방역, 안전, 교통대책, 환경정비, 문화행사, 의전 및 홍보 등 실질적 체전 준비를 위한 분야별 과제다.

전남도는 내년 대회를 앞두고 경기력 및 체육시설 기반 향상을 위해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과 각종 체전경기장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7월까지 시설 신축 5개소, 개·보수 51개소 등 총 56개소의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산부 배려 캠페인**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임산부는 임신기간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과 구토, 과도한 피로감, 우울감 등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으며, 특히 걸로 구분이 잘 안되는 **임산 초기**에는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유산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배려, 우리 모두 함께해요**

-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거나 양보하기**
- 줄서기를 하고 있다면 임산부에게 **순서 양보하기**
- 모두에게 해로운 **담배, 임산부에게는 특히 더 조심하기**
-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는 **금물**
- **출산 전·후 휴가**와 **단축근무** 신청은 **당연한 권리**

보건복지부 | 광주광역시 |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